

# 말레이시아는 지금 세금 공휴일(Tax Holiday)

말레이시아 사무소

## GST(Goods and Services Tax)란?

- GST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을 포함한 공급체계 안의 모든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소비세의 일종이다.
- GST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6% 고정세율로 운영되어 왔으나, 2018년 5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6월 1일자로 폐지되고 9월부터 다시 SST(Sales and Service Tax) 제도로 돌아가게 된다.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현재 한시적으로 소비세에서 자유로운 세금 공휴일(GST 0%)을 보내고 있다. 세금 공휴일 동안은 단계별로 부과된 GST에 대해 세액 공제 청구를 제공한다.
- 기존 SST가 소비자나 제조사에만 소비세를 부과한 것과 다르게 GST는 생산·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 더 포괄적이다.

## GST 0%에 대한 소비자/공급자 반응

- 하지만 GST가 0%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정부에 보고된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 건수는 GST 0% 이후 3배나 증가했다.
- 국내거래 및 소비자부(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)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17개 품목 중 70% 이상이 가격인하를 0.04~13%밖에 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체감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. Saifuddin Nasution Ismail 장관은 “가격 인하 폭이 기대했던 30~40%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.”고 말했다.

- 또한, 소규모 식당의 경우 원래 GST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가 없고 GST가 폐지된 이후 오히려 채소 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## GST 폐지/SST 재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

- ‘A Month After GST 포럼’에 참석한 한 연설자는 정부가 SST를 시행할 경우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세율과 관계없이 제품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며 GST가 국가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.
- 한편 말레이경제동맹회의(MTEM) CEO인 Ahmad Yazid Othman은 세금 공휴일은 새 정부가 세금 적용 이전에 실제 시장 가격을 분석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.
- 재무부는 개선된 SST 도입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. Lim Guan Eng 재무장관은 “9월 SST 도입 시점에 물품 가격을 인상하는 거래업자가 발견되면 조치를 가할 것”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.

## 말레이시아 진출 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 필요

- GST와 다르게 SST는 환급제도가 없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불리하며, 아직 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말레이시아 수출 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에 귀추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.